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보건정보통계전공
김 예 은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 남정모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통계학과 보건정보통계전공

김 예 은

김예은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남 정 모 인

심사위원 _____ 박 소 희 인

심사위원 _____ 김 규 리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1년 12월 13일

감사의 말씀

대학원에 입학한 후 쉽 없이 달려온 2년 반이 무사히 지나고 졸업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퇴근 후 만원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학교까지 뛰어 가면서도 1교시는 늘 놓치기 일쑤였고, 첫 학기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향되었지만 몰려오는 피곤함과 떨어지는 집중력으로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 더 치열하게 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열심이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논문이 완성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도해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주제의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에도, 주제를 잡고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항상 진지하게 고민을 들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주시고 배려해주신 박소희 교수님과 낯선 분석 방법에 대해 도움 주시고 꼼꼼하게 검토해주신 김규리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길어진 비대면 수업으로 지난 5학기 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신 동기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후배의 연락에도 흔쾌히 도움을 주신 정주희 선배님과 저를 대학원의 길로 인도해준 박소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남편 영재와 묵묵히 믿어주는 동생,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부모님, 시부모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넘치는 사랑 속에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에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김예은 올림

차 례

국문요약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	5
2.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	6
3.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수준	7
4. 통계학적 기법	7
III. 연구 방법	13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13
2. 연구의 틀	14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5
4. 분석방법	19
IV. 연구 결과	19
1.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적용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9
2.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27
3.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의 매개효과	34
V. 고찰 및 결론	37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37
2. 본 연구의 강점과 제한점	39

3. 결론 및 제언	41
참고문헌	43
영문초록	48

표 차례

Table 1. Summary of study population	14
Table 2.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	15
Table 3.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16
Table 4.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ediator	17
Table 5.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trol variable	18
Table 6. Model Selection Results	21
Table 7. All statistics for trajectory analysis	22
Table 8. Sample characteristics by Trajectory groups	25
Table 9. AIC for each covariance structure of Model 1	28
Table 10. Effect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on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30
Table 11. AIC for each covariance structure of Model 2.	31
Table 12. Effect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on their children's depression level.	33
Table 13. Summary of results for Model 1 and Model 2.	35
Table 14. Result of Sobel test	35
Table 15. Result of Bootstrapping	36

그림 차례

Figure 1. Summary of mediated effect	10
Figure 2. Mediated effect of degree of communication on child's depression	15
Figure 3. Children's depression group trajectories	22
Figure 4. Model for mother's Korean proficiency on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27
Figure 5. Model for depression level on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31
Figure 6. Diagram of the mediated effect	34
Figure 7. Summary of the mediated effect.	37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고유한 문제 중 하나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으로 파생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로써,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집중하여 분석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2차(2012년)~ 8차(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상자로 선정된 전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을 바탕으로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의 매개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 및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ROC TRAJ, PROC MIXED, PROC CAUSALMED 등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본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들은 많은 다문화 가정이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언어문제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현상 중,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으로써 다문화 가정 부모들에게 지속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

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지는 중요도를 보임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써 현실적인 제언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의 다양한 항목을 활용한 연구로 확장한다면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다문화 가정, 한국어 능력, 청소년 우울, 의사소통, 매개효과,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I. 서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레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김순규 2011). 2018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는 약 25만 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13%가 상승된 수치이다 (행정안전부, 2019).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이 성장하며 겪는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한 명의 건설적인 국민으로써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 중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발생한다. 청소년기는 국내 청소년 중에서도 약 27%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울을 경험할 만큼 불안정한 시기인데 (통계청, 2019),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은 특수한 배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Whaley & Fransis, 2006). 이들 중 상당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소외 및 외형적 차이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우울 등의 심리적 불안정을 느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내재화 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신재현, 2012; 신예진, 2017; 오승환, 2016).

이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각도로 바라보며 심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심층적인 접근을 하여 원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단순히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만 이루어지더라도 청소년기에 겪는 심리적 문제를 유의미하게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성장할 때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기여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자녀에게 자신감 및 안정감을 부여하기도 한다 (안형정, 2004; 민하영, 1992; 천우영, 2011). 더 나아가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낮추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또한 알려져 있다(박병금, 2009).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한국인 가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언어라는 문제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어 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의 특성과 한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박주희, 남주식, 2010) 사이의 괴리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교육을 주도적으로 받은 외국인들은 약 51.8%에 불과하고,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도 26.3%에 달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한글을 교육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 2019). 이와 같은 부모의 언어 능력 부족은 자녀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먼저 일차적으로 언어를 학습하시는 시기인 유아기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가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우현경 등, 2009; 이은경, 김화수, 2011). 하지만, 언어학습이 모두 이루어진 청소년기 자녀에게도 부모의 언어 능력 부족은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문제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완화 시키는 것에 대한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가 직면하고 있는 언어적 문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 등의 정서적 문제가 뚜렷하고, 이 둘 사이의 연관성도 명확히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언어 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2013년만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 0.7%에 불과하였지만 8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하여 2021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 2.8%에 달하게 되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1). 이처럼 급격하게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급격히 커진 상황이고,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비율이 6%에 달하는 만큼 (통계청, 2021a), 향후 다문화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더욱 깊은 관심과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다문화 가정이 이미 사회의 주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을 우리 주위에서 여럿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백인 비율이 2020년 기준 약 71% 밖에 되지 않고 (U.S. Census Bureau, 2020), 프랑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6.2%가 이민자며, 약 25%에 달하는 비율이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 (이산호, 2008)라고 한다.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례 연구 및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한국어가 가진 다른 언어와의 차별점은 해외에서 진행된 유수의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여러 결과들을 국내 사례에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에 대한 제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여러 해외의 언어와 구조적인 면 그리고 학습적인 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은 특히 주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여러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부모의 낮은 한국어 언어 수준으로 이로 인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관련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의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언어 능력 부족을 자녀의 언어발달, 학업 문제 등 자녀의 영유아기 시절에 집중되어 있거나,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그 자체로 이어지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여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기 자녀의 우울 정도에 미치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 능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진로 결정성 등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아닌 다른 매개 요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이를 부모의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을 이어서 자녀의 심리적 건강까지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의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매개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들에 대하여 시행된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세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많은 기사를 통해서 사례 적으로 접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부모들의 언어 능력의 부족과, 부모의 언어 능력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저해 요소로 실제 작용할 수 있

는지를 먼저 파악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가정 내에서 다양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만큼, 이 상황에서의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감을 낮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민하영(1992), 천성문 등 2007; 그리고 박병금(2009) 등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여러 측면에서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에 대해 시행된 연구로써 조금은 다른 상황적 특성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효과가 유지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내의 부모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자녀의 우울 정도에 끼치는 영향을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우현경 등(2009), 정윤정(2007)의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제한이 자녀의 학업성취도 및 또래 관계 등 학교생활에도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와 박명숙(2010)의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끼쳐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 및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천성문 등 2007; 최선윤, 2008)의 하나의 연장선으로써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에게 끼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파생 효과 혹은 매개 요인을 규명하는 측면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본 연구의 세부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실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의 저하로 연결이 되는가?

둘째,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자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셋째, 만약 위의 두 세부 연구 질문들의 효과가 모두 존재할 시,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과 함께 자아 정체감 형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서적 성장의 차이로 다양한 내외적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유안진 등, 2006). 이와 같은 어려움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곤 한다. 통계청 (2021b)에 따르면, 2020년 중, 고등학생의 25.2%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하고 이 중 고등학생은 27.4%, 중학생은 22.9%가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여학생(30.7%)이 남학생(20.1%)보다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다고 나타났다. 2019년 청소년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 신생물(암) 순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해(자살)가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우울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나며 특히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신재은, 1998). 청소년기에 겪는 우울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업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나아가 성인기의 우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임양화, 오경자 1989; 박병금 2009).

이와 같이 많은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과 같은 문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윤주, 이숙, 2009). 이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관련 환경 요인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 특히,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한광현 등, 2019; 손신영, 2019). 또한, 이 외에도 부모님과의

의사소통 시간, 부모님의 관심도 등 가정 내의 분위기, 그리고 학교 공부의 어려움 및 학교 폭력 경험 등의 학교 적응도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요소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소현 등, 2018).

2.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와 공통적인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모와의 상호 관계를 확인하고, 자신감과 안정감을 획득하곤 한다 (민하영, 1992).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어져 우울한 성향 또한 적다는 연구 결과도 기존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성문 등 2007; 박병금, 2009).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학교 적응도가 높고, 비행 청소년 비율이 낮은 등 전반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성향 또한 파악할 수 있다 (민하영, 1992; 이순비, 2010).

반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관계가 폐쇄적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가지는 불안 및 공격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이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행동에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불안 및 공격 성향은 청년 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영미 등, 2005; 이기연 등, 2014). 이는 가정 내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단순히 청소년기의 문제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 후에도 내재화된 문제로 자리 잡아 있음을 시사한다.

3.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수준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어휘력, 이해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국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창하지는 않다 (최현옥, 황보명, 2009). 특히 이들은 한국 입국 초기에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으며, 3-5년 정도 후가 되어야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을 시작한다 (김종철, 201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가정 내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문헌에서 알려져 왔다. 천우영(2011)에 따르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많아지며 아동의 자아정체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찌티하이(2019)는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부족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가 양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낮은 한국어 수준은 자녀들의 아동 발달 지연과 사회적응 곤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로 인한 문제가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현기, 전성애, 2013).

4. 통계학적 기법

가. 집단중심추세모형 (GBTM, 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

집단중심추세모형 (GBTM, 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은 종단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룹 기반 모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행동의 유사한 진행을 가진 개인의 궤적 그룹을 식별하도록 설계된 통계적 접근 방식이다 (Nagin, 2010; Niyonkuru C et al., 2013).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하여, 데이터를 유사한 성질을 지닌 특정 개수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질들을 비교분석하여 각 그룹이 지닌 성질에 대한 고유한 특성을 파

약할 수 있다.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그룹의 개수(Number of groups)와 각 그룹이 가지는 다항 차수(Polynomial order)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그룹의 개수는 전체 데이터를 유사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지를 결정하는 지표로써 작용하고, 다항 차수는 각 집단이 가지는 성질,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태 등을 대표한다.

선정한 그룹 개수 및 다항 차수로부터 형성되는 다양한 모델들 중 최적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적합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여러 모델들 중 BIC 값이 가장 높은 모델을 선정한다. BIC 값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산된다. 아래의 식에서 \ln 은 로그 우도의 값, k 는 모수의 개수, N 은 표본 수를 의미한다.

$$BIC = \log(L) - 0.5 k \log(N)$$

하지만, 그룹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혹은 다항 차수가 높아질수록 BIC의 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룹의 개수나 다항 차수가 높아졌을 때의 BIC 값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Bayes factor를 통하여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두 모델 사이의 BIC 값을 비교할 때, Bayes factor가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적합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Nagin, 1999; Victoria Arrandale et al., 2006; Niyonkuru C et al., 2013). Bayes factor는 두 모델 간의 BIC 값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구체적인 식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식에서 BIC_1 은 모델 1의 BIC 값을, BIC_2 는 모델 2의 BIC 값을 의미한다.

$$Bayes\ factor = e^{BIC_1 - BIC_2}$$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BIC의 값이 충분히 높더라도 만약 구분되어 있는 집단의 비중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는 설명력을 위하여 이 모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SAS에서는 집단중심추세모형을 PROC TRAJ를 통하여 분석하고, 종속변수의 데이터 형태에 따라 다른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중도절단 정규분포(CNORM, Censored Normal Model)는 일반

적으로 연속형 자료에 사용하며 이분형 자료는 로짓 모형(Logit based Model)을, 개수 데이터에는 ZIP(Zero-In flated Poisson)모형을 적용한다(Jones, Nagin and Kathryn, 2001).

나. 선형혼합모형(LMM, Linear Mixed Model)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Model)은 반복측정 자료와 같이 독립이 아닌 다양한 상관관계가 있는 자료에 적용 가능한 통계적 모형이다. 이는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모두 포함한 모형으로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며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이용희, 2010; 민인경, 2017).

$$Y = X\beta + Zb + \epsilon$$

고정효과(β , fixed effect)는 결과변수 추정에 있어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었을 경우 일정하게 영향을 미쳐 주요 변동 원인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임의효과(b , random effect)는 임의로 발생한 요인들의 효과를 포함한다 (민인경, 2017;).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공분산구조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공분산구조들이 자료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고, 이 관계성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형혼합모형을 통하여 분석하는 관점에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줄여 효율성의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진, 2020). 공분산 구조로는 비구조적(unstructured), 교환가능(compound symmetry)행렬, 일차 자기회귀모형의 AR(1) 행렬, Toeplitz 형태 등이 있다 (이미래, 2019; 이재훈, 박태성, 2009).

선형혼합모형에서 모형선택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를 이용하는데 이는 실제 모형과 분석하기 위해 추정된 모형의 거리인 Kullback-Leibler divergence(K-L divergence)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더욱 작을수록 적합하다고 판단한다(이용희 2010; 민인경, 2017;). AIC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계산된다. 아래의 식에서 $\log(L)$ 은 로그 우도의 값,

k 는 모수의 개수를 의미한다.

$$AIC = -2\log(L) + 2k$$

다. 매개효과

매개(mediation)는 독립변수인 X 가 종속변수인 Y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X 가 다른 하나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변수가 종속변수인 Y 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매개가 변수를 매개요인(mediator)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혹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효과(direct effect)라고 칭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효과(mediated effect)라고 부르며, 이를 간접효과(indirect effect)라고 칭한다. 이때 간접효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가 어느정도를 매개하는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합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총 효과(total effect)라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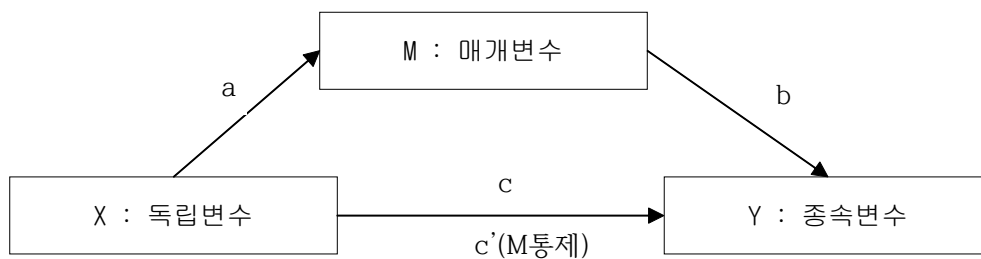


Figure 1. Summary of mediated effect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Baron & Kenny(1986)가 소개한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총 효과(Total effect)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와 매개요인을 거치지 않고

독립변수가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로 분해할 수 있음에 기반한다. 이를 위하여 Baron & Kenny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총 효과와 직접 효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직접 측정하여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Baron & Kenny가 제시한 검증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의 방법을 통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를 총 효과라고 칭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하게 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유의하지 않게 나온다면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포함시킨 최종 모델을 이용하여 이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c): $Y = B_0 + B_1X + \epsilon$

2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a): $M = B_0 + B_1X + \epsilon$

3단계)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b): $Y = B_0 + B_1M + \epsilon$

4단계) 매개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c'): $Y = B_0 + B_1X + B_2M + \epsilon$

이때 4단계 분석에서 나오는 c'이 유의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매개변수가 완전매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c'가 유의하게 나와 매개변수를 포함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면 매개변수를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매개효과 검증방식과는 달리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1단계의 총 효과가 유의하지 않더라도 매개변수가 충분히 매개효과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는 유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혹은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포함된 모형에서 매개효과 들의 방향에 따라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Hayes, 2009; Shrout & Bolger, 2002; 조영일 등, 2015).

Baron & Kenny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

으로는 이론적 분포를 활용한 Sobel test의 Z 검증을 활용한 방법과 경험적 분포를 활용한 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매개변수가 통제되어있는 상황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지에 집중한다.

Sobel test는 매개 요인 분석을 위해 필요조건으로 Baron & Kenny에서의 2 단계였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반드시 유의하여야만 한다. 모형이 유의한 경우, 우리는 이 모형을 통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비표준화계수(B)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산출한다. 임의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서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각각 B_a, σ_a 라고 정의하자. 다음으로는 Baron Kenny에서의 3단계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올 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경우, 이때의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각각 B_b, σ_b 라고 정의하고, 앞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에서 구하였던 B_a, σ_a 와 함께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한다.

$$Z = B_a B_b / \sqrt{B_a^2 \sigma_b^2 + B_b^2 \sigma_a^2}$$

이때, 만약 z 의 절대값이 1.96보다 크다면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Bootstrapping은 Sobel test가 정규분포를 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한 방법으로 Preacher, K.J., & Hayes, A.F.(2008)이 제안하여 널리 알려졌다. 이 방법의 원리는 Sobel test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모형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며 비모수를 가정하고, 데이터의 정규분포 또한 가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Sobel test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도 개선된 형태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반복적인 환원무선표집(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을 사용한 방법으로 Sobel test의 z 검증보다 통계적으로

높은 검증력을 나타내어 최근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권장되는 매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본 방법론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정하여 이 추정치를 모수로 가정한 후, 사례 수가 N인 표본에서 N개의 사례를 환원무선표집 한다. 표집된 개체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며 무선 표집과 매개효과 추정을 반복하고, 일반적으로 10,000번 이상 반복한 추정된 값들을 바탕으로 경험적 분포를 그려 교정하며 95% 신뢰구간을 구한다. 이때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수준 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Hayes, 2009; 조영일 등, 2015).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이하 MAPS)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또는 대체 양육자를 대상으로 배경, 성장 발달, 심리 상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이다. 2011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혹은 대체 양육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가 되었으며, 매년 동일한 대상으로 자녀가 만24세가 되는 2025년까지 15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총 1,625 가구이며, 학부모는 1,625명, 응답 청소년은 쌍둥이를 포함하여 1,635명이었다. 2018년 8차 자료에서 답변한 가구는 총 1,188가구이며 청소년은 1,197명, 학부모는 1,166명으로 원표본 유지율은 73.1%이다.

집단중심추세모형(GBTM, Group based Trajectory Modeling)은 결측치의 분포를 무작위 결측(MAR, Missing At Random)으로 가정하고 각 개체에 대한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따라서 집단중심추세모

형 분석 시에는 결측치를 포함하여 총 1,635명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하나 이상의 모델에서 꺾적을 보이지 않는 113명을 제외한 1522명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형혼합모형(LMM, Linear Mixed Model)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우울이 처음 조사된 시점인 2012년의 2차 자료부터 현재까지 공개된 2018년의 8차 자료까지 총 7개년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결측치가 유의미하게 많은 319명을 제외하여 총 1,31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1. Summary of study population

	전체 대상자 (명)	결측치 (명)	최종 연구 대상자 (명)
집단중심추세모형	1.635	113	1,522
선형혼합모형	1.635	316	1,316

2.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선형혼합모형을 시행한 후 매개요인 분석을 시행한다(Baron & Kenny, 1986; Krull and MacKinnon, 1999).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Model 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Model 2). 이후,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본 분석을 위하여 우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부모 학력, 문화적응 스트레스(김지혜, 2019; 남윤주, 이숙, 2009; 유지희, 황숙연, 2016; 허청아 등, 2018), 및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어머니 출신 국가, 월평균 소득수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 어머니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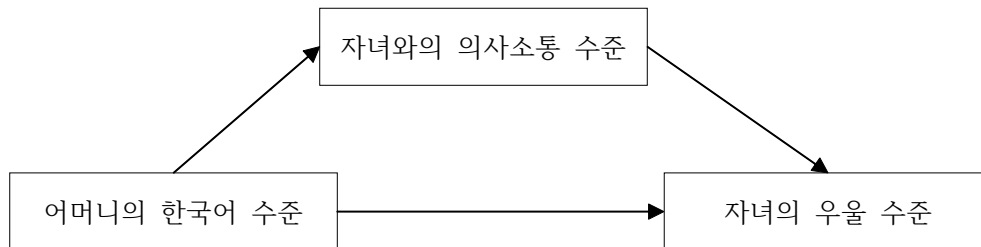


Figure 2. Mediated effect of degree of communication on child's depression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가. 독립변수 :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조사한 학부모 문항을 사용하였다. 한국어 수준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은 '전혀 못함'에서 '매우 잘함'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하였고,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2.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

구분	변수	내용	척도(점수)
독립변수	한국어 수준	말하기	전혀 못함(1) 못하는 편(2) 잘하는 편(3) 매우 잘함(4)
		쓰기	
		읽기	
		듣기	

나. 종속변수 : 자녀의 우울 수준

자녀의 우울 수준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에서 조사한 총 10개의 유관 항목을 활용하였다. 응답 문항은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총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구 분	변 수	내 용	척도(점수)
종속변수	우울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않은편이다(2) 그런편이다(3) 매우그렇다(4)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울기를 잘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외롭다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나는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다. 매개변수 :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MAPS)에서 조사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전혀 안 된다(1점)’에서 ‘매우 잘 된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 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였다.

Table 4.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mediator

구 분	변 수	내 용	척도(점수)
매개변수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안 된다(1)
			안 되는 편이다(2)
			잘되는편이다(3)
			매우 잘 된다(4)

라. 통제변수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다양하게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집중한 통제변수는 성별 (유지희, 황숙연, 2016), 부모의 학력 (허청아 등, 2018)을 문헌을 바탕으로 설정하였고, 이 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어머니 출신 국가, 월평균 소득수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 어머니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여성=0, 남성=1로 두었고, 부모의 학력은 중졸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2~3년제 대학 졸업=3, 4년제 대학교 졸업=4, 대학원 졸업=5로 구분하였다. 배우자와의 결혼상태는 0=결혼, 1=이혼, 별거, 사별, 동거로 설정하였고 어머니 출신 국가는 한국, 중국(한족, 기타민족), 중국(조선족), 동남아(기타), 일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월평

균 소득수준은 응답 내용을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분석단위는 만원이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은 각각 9개, 8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의 총합이 높을수록 각 항목의 크기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월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였다.

Table 5.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ontrol variable

구분	변수	내용	척도(점수)
통제변수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었다	
		남편 때문에 걱정이었다	
		친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시부모 또는 시댁식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약간 그렇다(2)
		친정부모 또는 친정식구 때문에 걱정이었다	상당히 그렇다(3) 아주 많이 그렇다(4)
		가족과 보내는 시간 때문에 걱정이었다	
	부母的 양육태도(감독)	가족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었다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걱정이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AS version 9.4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 시행한 세 가지의 주요한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따른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형혼합모형을 통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및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위의 모델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sobel test 및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집단중심추세모형을 적용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2012년~2018년, 총 7개년간의 다문화 청소년패널 데이터의 일반적 특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종속변수인 자녀의 우울 수준을 중심으로 집단중심추세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를 구분하는 적합한 그룹 수(Number of groups) 및 각 궤적 그룹의 경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최적 다항차수(Polynomial order)를 결정한다.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합한 그룹 수 및 다항차수를 변경해가며 각 모

델의 적합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모델을 선정한다 (John and Nagin, 2001). 그룹 수는 전체 데이터를 유사한 궤적을 지닌 몇 개의 집단으로 데이터를 구분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최적 다항차수는 궤적의 모양과 관련이 있으며 1차(linear)는 선형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궤적을 나타낸다. 2차(quadratic)는 하나의 변곡점이 있는 궤적이며 3차(cubic)형태는 최대 및 최소 두 개의 변곡점이 있는 궤적을 나타낸다(Christian Niyonkuru, 2013).

우리는 최적의 그룹 개수 및 최적 다항 차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 그룹의 개수를 지정한 상황에서의 최적 다항 차수를 찾고, 그 이후 각 그룹 개수 내에서의 최적 다항 차수를 설정하였을 때의 모델 적합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적 그룹 개수 및 최적 다항 차수를 설정하였다.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는 지표로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한 판단 기준인 BIC값과 Bayes factor를 이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BIC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고 하며, 특히 Bayes factor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진다고 판단한다.

먼저, 5개 이상의 그룹으로 구분을 하였을 때는 다항 차수와 무관하게, 일부 그룹 내에 속하는 집단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그룹의 개수가 4개 이하인 경우에 대한 결과만 [Table 6]에 제시하였고, 각 그룹 개수 내에서는 모든 그룹의 다항 차수가 2 이하로 설정한 경우에서 최적 다항 차수가 결정되었다. [Table 6]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마지막 행에서 제시되어 있는 총 4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을 때 BIC의 값이 가장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가장 작은 그룹의 크기가 전체 샘플의 3%미만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그룹을 나눌 때 권장되는 구성비의 비율 기준인 5%에 달하지 못하였기에(홍백의, 김혜연, 2010) 비록 더 낮은 BIC 값과 유의미한 Bayes factor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정하지 않았다. 그다음으로는 총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높은 모델 적합도(낮은 BIC 및 유의미한 Bayes factor)를 보여주고, 이 경우에는 각 그룹들이 유의미한 구성비를 보여서 이를 최적 모델로 설정하였다.

Table 6. Model Selection Results

Number of groups	Polynomial order	BIC	Bayes factor
1	1	-29122.04	
2	2, 1	-28155.02	>1000
3	2, 1, 1	-27948.72	>1000
4	2, 1, 1, 2	-27903.61	>1000

Notes. The represented 'Polynomial order' is the best one within each group.

우울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된 세 개의 그룹은 [Figure 3]에 소개된 바와 같다. [Table 7]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각 그룹에 대한 p-value 값은 모두 0.001 미만으로 나와 통계적 적합성을 만족하였다. 각 그룹 간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그룹 간 우울 정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우울 지수 낮은 그룹(Low group, N=601, 39.7%),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Moderate group, N=807, 44.7%),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High group, N=227, 15.6%)으로 명칭하였다. 추가적으로,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과 높은 그룹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증가하는 정도는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의 경우 매년 0.59,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의 경우 매년 0.40정도로 이 값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우울 수준이 낮은 그룹의 경우 우울의 정도가 오목한(concave) 형태를 보이지만, 7년 간의 우울 정도가 변화하는 수준이 1 이하에 그치므로 전체적으로 우울 수준이 유지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Children's Depr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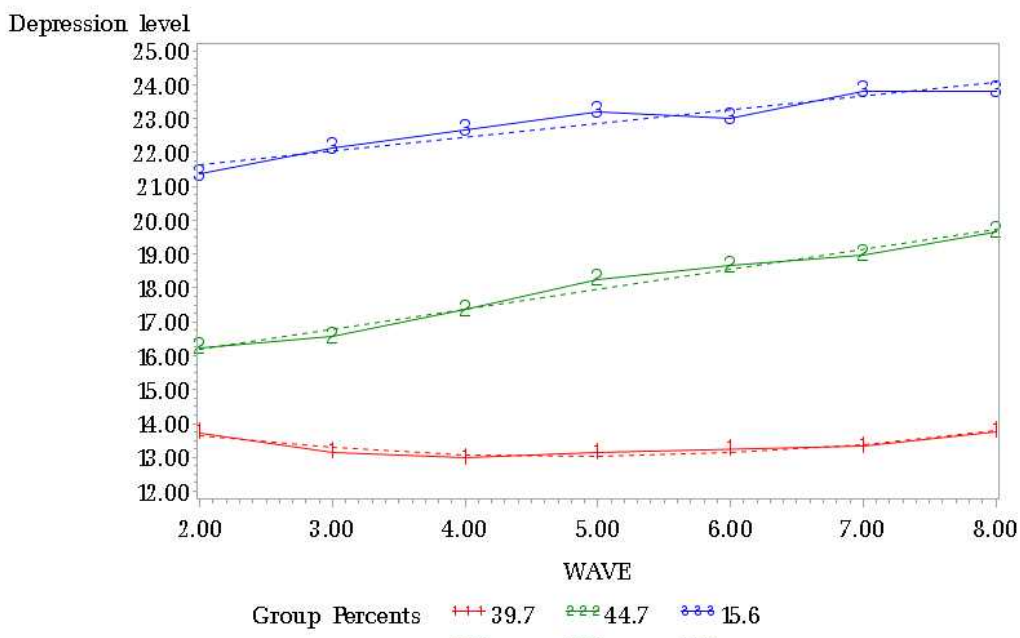


Figure 3. Children's depression group trajectories

Notes. : group 1: low group, group 2: moderate group, and group 3: high group.

Table 7. All statistics for trajectory analysis.

Parameter		Estimate (S.E)	Pr > t
Low group	Intercept	14.77 (.50)	<.001
	Linear	-.72 (.22)	.001
	Quadratic	.07 (.02)	<.001
Moderate group	Intercept	15.02 (.28)	<.001
	Linear	.59 (.05)	<.001
High group	Intercept	20.85 (.42)	<.001
	Linear	.40 (.07)	<.001

Percentage of each group	Estimate (S.E)	Pr > t
1	39.73 (1.97)	<.001
2	44.67 (1.93)	<.001
3	15.6 (1.73)	<.001

본 연구에서의 구분한 Trajectory groups에 기반한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제시된 모든 일반적인 특성은 향후 분석에서 사용되는 독립변수-어머니의 한국어 수준(Mothers' Korean proficiency)-, 매개변수-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Communication level)-, 그리고 통제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의 결과 중 우리가 주목할만한 부분은,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그룹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전체 평균은 3.25, 표준편차는 0.59였으며 우울 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2$). 우울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평균 3.30, 표준편차 0.56,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에서는 평균 3.25, 표준편차 0.60,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평균 3.13, 표준편차 0.60의 순으로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모델 2를 통하여 진행할 분석인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사이의 관계 또한 충분히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주요 변수들 중에서는 성별과 배우자와의 결혼상태,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태도(감독)가 그룹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 740명(49.3%), 여자 760명(50.7%)으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응답자의 수를 보였다. 우울 수준에 따라 그룹별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울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남학생 344명(58.4%), 여학생 245명(41.6%),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에서는 남학생 323명(47.2%), 여학생 362명(52.9%),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남학생 73명(32.3%), 여학생 153명(67.7%)로 나타났으며 각 그룹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특히, 우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남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감독)는 전체 평균은 9.69, 표준편차는 1.76이었으며 우울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평균 10.16, 표준편차 1.75,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에서는 평균 9.54, 표준편차 1.76,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평균 8.90, 표준편차 1.79이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평균 소득수준의 경우 전체 평균 219.42, 표준편차 106.76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평균 226.48, 표준편차 111.16,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에서는 평균 215.42, 표준편차 102.79, 그리고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평균 213.21, 표준편차 106.35로 전반적으로 소독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감소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117$).

어머니의 출신 국가의 경우 동남아 및 기타가 541명(33.53%)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501명(36.21%), 중국(조선족) 286명(19.14%), 중국(한족, 기타민족) 109명(7.30%) 그리고 한국 57명(3.82%) 순이었다. 우울 수준에 따른 어머니 출신 국가의 경우 그룹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전체 평균 161.13 표준편차 40.03였으며 모든 그룹에서 비슷한 평균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639$).

마지막으로 독립 변수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전체 평균 12.15, 표준편차 2.20이었으며 우울 수준이 낮은 그룹에서는 평균 12.19, 표준편차 2.21, 우울 수준이 보통인 그룹에서는 평균 12.18, 표준편차 2.18, 우울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평균 11.96, 표준편차 2.22였다.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경향은 보여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371$).

Table 8. Sample characteristics by Trajectory groups

Parameter		Low group (N=601)	Moderate group (N=807)	High group (N=227)	Total sample (N=1635)	Statistics	
Gender , N (%)	Male	344 (58.4)	323 (47.2)	73 (32.3)	740 (49.3)	$\chi^2(2) = 46.92$ $p < .001$	
	Female	245 (41.6)	362 (52.9)	153 (67.7)	760 (50.7)		
Marriage	Married	560 (93.2)	634 (78.6)	214 (94.3)	1408 (86.1)	$\chi^2(2) = 76.21$ $p < .001$	
	Unmarried	41 (6.8)	173 (21.4)	13 (5.7)	227 (13.9)		
Mothers' country	Korea	23 (3.92)	24 (3.52)	10 (4.42)	57 (3.82)	$\chi^2(8) = 3.35$ $p = .911$	
	Chinese (Han, etc.)	43 (7.34)	49 (7.18)	17 (7.52)	109 (7.30)		
	Chines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117 (19.97)	124 (18.18)	45 (19.91)	286 (19.14)		
	Southeast Asian, etc.	220 (37.54)	242 (35.48)	79 (34.96)	541 (36.21)		
	Japanese	183 (31.23)	243 (35.63)	75 (33.19)	501 (33.53)		
Parental education level	Mother	≤Middle school	57 (9.73)	79 (11.58)	29 (12.83)	165 (11.04)	$\chi^2(6) = 7.42$ $p = .283$
		High school	275 (46.93)	314 (46.04)	119 (52.65)	708 (47.39)	
		Junior college	146 (24.91)	176 (25.81)	48 (21.24)	370 (24.77)	
		University, Graduate school	108 (18.43)	113 (16.57)	30 (13.27)	251 (16.80)	
	Father	≤Middle school	170 (30.41)	188 (29.24)	62 (28.97)	420 (29.66)	$\chi^2(6) = 6.04$ $p = .419$
		High school	273 (48.84)	338 (52.57)	120 (56.07)	731 (51.62)	
		Junior college	44 (7.87)	46 (7.15)	9 (4.21)	99 (6.99)	
		University, Graduate school	72 (12.88)	71 (11.04)	23 (10.75)	166 (11.72)	

Table 8. Sample characteristics by Trajectory groups (continued)

Parameter	Low group (N=601)	Moderate group (N=807)	High group (N=227)	Total sample (N=1635)	Statistics
Mothers' self-esteem	27.03 (2.83)	26.96 (2.76)	26.61 (2.54)	26.94 (2.76)	$F_{2,1491} = 1.96$ $p = .141$
Mothers' life stress	14.25 (5.11)	14.13 (4.84)	15.14 (5.18)	14.33 (5.00)	$F_{2,1459} = 3.52$ $p = .030$
Parenting	10.16 (1.75)	9.54 (1.76)	8.90 (1.79)	9.69 (1.76)	$F_{2,1497} = 46.83$ $p < .001$
Duration of living in Korea(month)	160.91 (39.53)	161.99 (39.67)	159.06 (42.43)	161.13 (40.03)	$F_{2,1434} = 0.45$ $p = .639$
Monthly household income	226.48 (111.16)	215.42 (102.79)	213.21 (106.35)	219.42 (106.76)	$F_{2,1491} = 2.14$ $p = .117$
Mothers' Korean proficiency	12.19 (2.21)	12.18 (2.18)	11.96 (2.22)	12.15 (2.20)	$F_{2,1434} = 0.99$ $p = .371$
Communication level	3.30 (0.56)	3.25 (0.60)	3.13 (0.60)	3.25 (0.59)	$F_{2,1434} = 6.30$ $p = .002$

2.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연관성 분석

이번 분석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한국어 능력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 사이의 관계(모델 1) 및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사이의 관계(모델 2)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을 위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을 독립변수, 그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독립변수, 그리고 자녀의 우울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과 두 번째 분석에서는 앞서 제시한 통제변수들을 공통적으로 이용하였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추가적으로 모델 1의 독립변수였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또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모델 1: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매개변수인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모델에서는 종속변수를 기존 매개변수인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 외의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포함한 형태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모델의 구성은 아래의 [Figure 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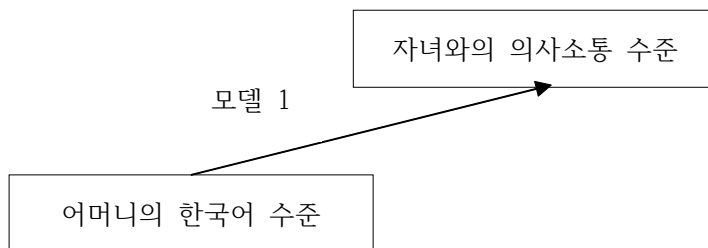


Figure 4. Model for mother's Korean proficiency on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동일한 개체에서 반복측정된 자료들을 분석할 때에는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고려해야한다. 이는 공분산 행렬로 나타나는데 적절한 공분산 구조를 선택하는 것은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중요하다(이재훈, 박태성, 2009). 널리 알려진 공분산 구조로는 비구조적(unstructured), 교환가능 (compound symmetry)행렬, 일차 자기회귀모형의 AR(1) 행렬, 분산성분모형(variance components), Toeplitz 등 여러 형태 들이 있는데,(이미래, 2019; 이재훈, 박태성, 2009) 본 분석에서는 경시적 자료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CS, UN(1), AR(1), VC 4가지의 공분산 구조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공분산구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각 모형에 따른 AIC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AIC 값이 더 작을수록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고 알려져있다. 각 공분산 구조에 대한 결과 값은 [Table 9]과 같다. 표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compound symmetry covariance structure를 선택하였을 때의 AIC가 가장 낮은 값을 가져 이를 선택하여 주 모델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9. AIC for each covariance structure of Model 1.

	CS	UN(1)	AR(1)	VC
AIC	10483.7	11277.9	10784.3	11263.7

모델 1의 결과는 [Table 10]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 .001$). 이는 한국에서 성장하고 한국어를 원활히 쓰는 자녀들의 특성상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부족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고 의사소통을 적게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현기, 전성애, 2013; 천우영, 2011).

이 외에도 통제변수들 중 어머니의 자아존중감($p = .016$),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p < .001$),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p = .002$), 월평균 소득수준($p = .000$), 어머니 출신 국가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성별($p = .612$), 배우자와의 결

혼상태($p = .553$), 한국에서의 거주기간($p = .688$), 부모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부모 학력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모든 학력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면 의사소통 수준이 0.005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0.01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감독)이 높아질수록 의사소통 수준이 0.011 증가하였다. 어머니 출신 국가는 모든 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조선족)인 경우 0.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계라는 큰 틀에서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사용하는 조선족의 경우가 다른 국가 출신의 어머니들에 비해 언어의 문제가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Effect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on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Effect		β (S.E)	Pr > t	
Intercept		2.28(.100)	<.001	
Gender	Male	.011(.019)	.612	
	Female	.	.	
Marriage	Married	.039(.065)	.553	
	Unmarried	.	.	
Mothers' country	Korea	.	.	
	Chinese (Han, etc.)	.172(.041)	<.001	
	Chines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203(.031)	<.001	
	Southeast Asian, etc.	.061(.025)	0.014	
	Japanese	.	.	
Parental education level	Mother	≤Middle school	-.058(.041)	.288
		High school	-.037(.029)	.333
		Junior college	-.050(.031)	.252
		University, Graduate school	.	.
	Father	≤Middle school	.026(.038)	.533
		High school	.025(.036)	.508
		Junior college	-.035(.049)	.505
		University, Graduate school	.	.
Mothers' self-esteem		.005(.002)	.016	
Mothers' life stress		-.016(.001)	<.001	
Parenting		.011(.004)	.002	
Duration of living in Korea(month)		.000(.000)	.688	
Monthly household income		.000(.000)	.000	
Mothers' Korean proficiency		.064(.004)	<.001	

나. 모델 2: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분석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녀의 우울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제변수를 모델 1과 같이 설정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끼치는 영향에 집중하였다. 모델의 구성은 아래의 [Figure 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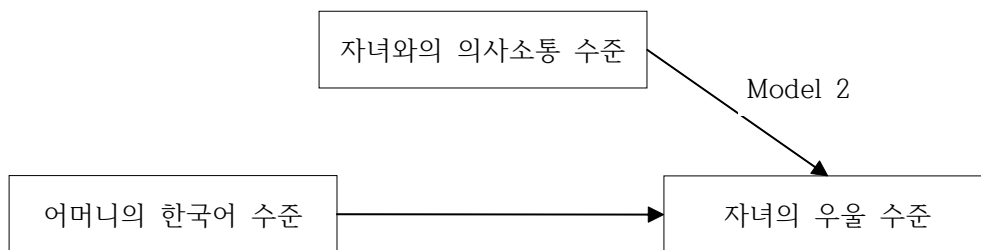


Figure 5. Model for depression level on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본 분석에서도 모델 1과 같이 AIC를 기반으로 covariance structure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표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Compound Symmetry covariance structure를 선택하였을 때의 AIC가 가장 낮은 값을 가져 이를 선택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11. AIC for each covariance structure of Model 2.

	CS	UN(1)	AR(1)	VC
AIC	41357.9	42851.0	41516.1	42840.9

[Table 12]은 모델 2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분석 결과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우울 수준이 0.34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이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기존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우울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박병금, 2009).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p = .017$), 배우자와의 결혼상태($p = .002$),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p < .001$),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p < .001$), 한국 거주 기간($p < .001$)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일 경우가 여자일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1.540 증가하였으며 배우자와의 결혼상태가 결혼일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우울 수준이 1.98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 수준이 0.053 증가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감독)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우울 수준이 0.81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주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의 정서적 안정감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이를 통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 사이의 관계를 파악했던 이전 모델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월평균 소득수준($p = .197$)과, 모델 1에서의 독립변수였던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p = .947$)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Effect of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ommunication level with children on their children's depression level.

Effect		β (S.E)	Pr > t	
Intercept		20.347(.966)	<.0001	
Gender	Male	1.540(.200)	.017	
	Female	.	.	
Marriage	Married	1.985(.625)	.002	
	Unmarried	.	.	
Mothers' country	Korea	.	.	
	Chinese (Han, etc.)	.187(.434)	.667	
	Chinese (ethnic Koreans living in China)	-.337(.323)	.296	
	Southeast Asian, etc.	-.259(.259)	.318	
	Japanese	.	.	
Parental education level	Mother	≤Middle school	.968(.425)	.151
		High school	.334(.307)	.390
		Junior college	.282(.329)	.482
		University, Graduate school	.	.
	Father	≤Middle school	.061(.401)	.884
		High school	.349(.372)	.392
		Junior college	-.032(.510)	.953
		University, Graduate school	.	.
Mothers' self-esteem		.012(.020)	.548	
Mothers' life stress		.053(.013)	<.001	
Parenting		-.812(.034)	<.001	
Duration of living in Korea(month)		.015(.002)	<.001	
Monthly household income		.001(.001)	.197	
Mothers' Korean proficiency		.002(.035)	.947	
Communication level		-.342(.106)	.001	

3.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의 매개효과

본 분석에서는 모델 1과 모델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우울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Sobel test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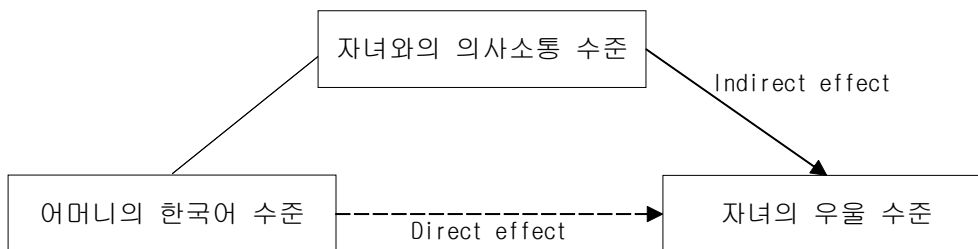


Figure 6. Diagram of the mediated effect

가. Sobel Test

Sobel test는 Sobel, M.E.(1982)에서 제안한 매개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추후 서술할 bootstrap 방법이 나타나기 전까지 널리 활용되던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 방법이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서술한 Baron & Kenny에서 제시한 4단계의 분석 중 2단계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3단계의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측정한다.

앞서 분석하였던 모델 1과 모델 2를 통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측정하였다. 이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 [Table 13]와 같다.

Table 13. Summary of results for Model 1 and Model 2.

	Model 1 (X → M) <i>B</i> (σ)	Model 2 (X, M → Y) <i>B</i> (σ)
Intercept	2.28 (.100)	20.347 (.966)
Mothers' Korean proficiency	.064*** (.004)	.002 (.035)
Communication level	.	-.342*** (.106)

Notes. i) X:Mothers' Korean proficiency, M: Communication level,

Y: Child's depression level,

ii) * $p < 0.10$, ** $p < 0.01$, *** $p < 0.001$.

먼저, 모델 1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p < .001$) 이는 매개 요인 분석을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이다. 이때 비표준화계수는 0.064, 그리고 표준편차는 0.004로 측정되었다. 모델 2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p < .001$) 이는 Sobel test를 위한 두 번째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이다. 이때의 비표준화계수는 -0.342, 그리고 표준편차는 0.106으로 측정되었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한 Sobel test 결과는 [Table 14]과 같다. Z 값은 -3.16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되는 p -value는 약 0.001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사이의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14. Result of Sobel test

Path	Z	p-value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 → 자녀의 우울 수준	-3.16	0.001

나. Bootstrapping

우리는 매개효과 측정을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Bootstrapping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론을 통하여 매개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가장 먼저 주목할만한 점은, 간접효과(Natural Indirect Effect)와 총 효과(Total Effect)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가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접효과(Natural Direct Effect)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1단계의 총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가 유의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로 설명 가능하다. 이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Table 15. Result of Bootstrapping

N=7,058 (Number of Bootstrap Samples=1,000)

	Estimate	Bootstrap Standard Error	Bootstrap Bias Corrected 95% Confidence Limits	
Total Effect	-.065	.033	-.131	-.002
Controlled Direct Effect (CDE)	-.030	.034	-.104	.033
Natural Direct Effect (NDE)	-.030	.034	-.104	.033
Natural Indirect Effect (NIE)	-.035	.010	-.055	-.017
Percentage Mediated	54.07	549.74	10.98	384.26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에 대하여 독립변수의 총 효과가 매개변수를 통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Percentage Mediated 값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으로 인한 매개효과가 54.07%로 나타났다.

우리는 Sobel test 및 Bootstrapping 방법론 모두를 통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사이에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짐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Sobel test 및 Bootstrapping 모두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의 부족이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낮추고, 이가 자녀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최종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Figure 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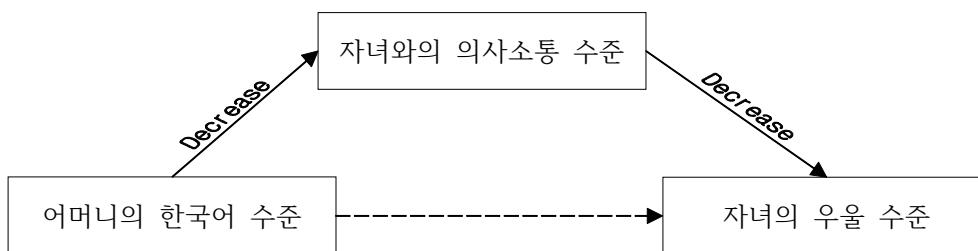


Figure 7. Summary of the mediated effect.

V. 고찰 및 결론

1.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패널 조사(MAPS)의 7개년, 2012년~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형혼합모형(LMM,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 및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모델을 통하여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의 부족이 실제로 자녀와의 의사소통 수준을 낮추는 형태로 작용함을 보였다. 이는 자녀가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으며

한국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부모님의 모국어에 대한 친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기존의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더하여, 다문화 가정에서는 추가적으로 언어라는 측면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고려할만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델 2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여전히 자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특히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최선윤, 2008)와 일치한다. 또한, 이에 더하여 자녀의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언어적 측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의 부족이 가정 내의 의사소통 수준을 낮추게 되고, 자녀의 우울감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우리는 Sobel test 및 Bootstrapping 두 결과 모두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수준이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자녀의 우울 수준 사이에서 매우 유의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의 부족이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연과 나아가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우현경 등, 2009; 이은경, 김화수, 2011),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겪는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운정(2007) 및 박명숙(2010)에 이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우울 정도 사이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수준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인다.

2. 본 연구의 강점과 제한점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첫 논문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문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이와 같은 강점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수의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내용인 청소년기 자녀들의 상당수가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과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만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연결시킨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국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을 이어감과 동시에 다문화 가정들만 겪을 수 있는 이들의 특성인 언어적 문제가 의사소통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실제 다문화 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이들의 문제가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 가지의 분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작점으로 하여 국내 가정들과 다르게 다문화 가정에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규명하는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집된 설문 조사 결과를 새로운 관점에서 연결시켰다는 점과 향후 7년간 진행될 설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결론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의 언어 능력이 가장 직관적이고, 중요한 형태로 가정 내에 끼치는 영향인 의사소통 수준에 집중하여, 이가 자녀의 우울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언어 능력이 가정 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양하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의 지표로 확장하여 부모의 언어 능력으로부터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효과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연구는 자녀가 12살(2012년)부터 18살(2018년)이 되는 기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문제

로 언급되는 우울 문제에 집중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자녀가 25살이 되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면 이영미 등(2005)의 연구에 이어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도 부모의 언어 능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연구 표본의 편향성 및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본 논문에서 가지는 제한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본 연구 표본의 대부분은 부모님 중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며 아시아지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의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조금 더 직관적인 관계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한쪽의 부모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는 역할이 문화 또는 가정의 특성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부모가 가지는 언어적 특성이 작용하는 형태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유럽, 미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부모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 포함되어 있을 때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언어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서는 언어의 구조, 문법 등이 유사성을 보이지만, 먼 거리에 있는 경우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언어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표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모의 한국어 능력 등 몇몇 항목의 경우, 주관적인 답변이 데이터의 정확성 혹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한국어 능력의 경우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거주한 기간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을 저평가하여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부모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와 같은 요소는 매개요인인 의사소통 수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

의하여야 한다. 자녀는 한국어 능력이 모국어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부모는 외국어로 뒤늦게 한국어를 접하는 특성상 한국어 수준이 자녀에 비해 더디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느끼기엔 언어 능력의 격차, 의사소통의 한계로 다가오게 되어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을 저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실제로 의사소통의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의사소통 수준이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의사소통 수준을 매개로 자녀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 내에서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가 자녀의 우울 수준에도 의사소통 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우리가 본 분석에서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우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외국인 부모의 언어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많은 언어 교육은 한국에 입국한 직후이거나 자녀를 육아하기 시작하는 초반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 부딪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 혹은 주 양육자의 한국어 수준은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습득 능력의 문제로 이어질 뿐 아니라,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였듯 한국에서 거주하는 특성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언어 수준의 차이가 의사소통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우울 수준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에게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한국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번 분석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언어적 문제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정 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정 내의 의사소통 문제는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국내 가정에서도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혹은 깊은 이해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문화적인 측면도 강조한 교육을 지원하여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외국인 부모는 한국의 문화에 적응하고 이를 내재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외국인 부모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의 교육 정책과 지원 방식을 심도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한국의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 내의 외국인 부모가 가지는 언어적 능력으로부터 자녀에게로 파생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 혹은 지원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청소년 우울 수준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수준과 어머니의 언어 능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이어나가 다문화 가정 내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인지하고, 각 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 상황에 맞는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2021), 2021.
- 김순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2011;18:247-72.
- 김양진. (R과 SAS를 이용한) 경시적 자료분석. 파주: 자유아카데미; 2020.
- 김종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과 한국 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14.
- 김지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2019;17:115-24.
- 김현기, 전성애. 농촌 거주 다문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다문화의사소통 2013;2:45-53.
- 남윤주, 이숙.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2009;47:27-36.
- 문소현, 이민경, 이미정, 심하진, 조현하. 다문화 가정 학령기 아동의 우울 영향 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8;24:434-42.
- 민인경.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에서 추정과 선택법에 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2017.
-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992;13:112-24.
- 박명숙.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010;30:193-218.
- 박병금.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09;31:207-35.
- 박주희, 남지숙.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010;21:129-52.

손신영.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19;20:101-11.

신예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17.

신재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8.

신재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2012.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2018년), 2019.

오승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6;56:1-27.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2009;30:23-36.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또래 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006;24:31-41.

유지희, 황숙연.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016;13:115-46.

이기연, 홍상욱.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2:414-414.

이미래.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중년 여성의 우울에 대한 한국복지패널 자료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2019.

이산호. 프랑스의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정책. 다문화콘텐츠연구 2008:7-25.

이순비, 김경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2010;9:119-36.

- 이영미, 민하영, 이운주.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정과삶의질연구* 2005;23:53-62.
- 이용희. 불균형 자료에서 AIC 를 이용한 선형혼합모형 선택법의 효율에 대한 모의실험 연구. *응용통계연구* 2010;23:1169-78.
- 이은경, 김화수.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언어발달 양상.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2011;50:183-201.
- 이재훈, 박태성. 복합구조 반복측정자료에 대한 모형 연구. *응용통계연구* 2009;22:1265-75.
- 임양화, 오경자. 우울한 아동의 귀인유형.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89;8:69-76.
- 정윤정.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석사학위 논문]. 경기: 가톨릭대학교; 2007.
- 조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의 비교 및 통합: 개념 정의 및 통계 모형.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5;34:1113-31.
- 찐티하이.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특성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2019.
- 천성문, 박원모, 이영순, 조장식. 초등학교 5, 6 학년 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또래관계,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7;9:1901-12.
- 천우영. 다문화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2011.
- 최선윤. 부모갈등 부모-자녀 의사소통 청소년의 사회불안 및 우울간의관계 구조 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 경북대학교, 2008.
- 최현욱, 황보명.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009;10:315-329.

- 통계청. 2019년 청소년 통계표, 2019.
- 통계청, 2020년 다문화인구동태 통계, 2021a.
- 통계청, 2021년 청소년 통계, 2021b.
- 한광현, 강상경.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9;47:231-57.
- 행정안전부. 인구주택총조사(2018년), 2019.
- 허청아, 김혜성, 김윤하.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의 관계: 학교 다문화분위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8:214-214.
-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51:1173.
- Niyonkuru C, Wagner AK, Ozawa H, Amin K, Goyal A, Fabio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applications for prognostic biomarker model development in severe TBI: a practical example. *Journal of Neurotrauma* 2013;30:938-45.
- Hayes AF.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2009;76:408-20.
- Krull JL, MacKinnon DP. Multilevel mediation modeling in group-based intervention studies. *Evaluation review* 1999;23:418-44.
- Nagin DS.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1999;4:139.
- Nagin DS, Odgers CL.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in clin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10;6:109-38.
- Preacher KJ, Hayes AF. Assessing mediation in communication

research: The Sage sourcebook of advanced data analysis methods for communication ...; 2008.

Shrout PE, Bolger N.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2002;7:422.

Sobel M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13:290-312.

U.S. Census Bureau, 2010 Census Redistricting Data (Public Law 94-171)

Victoria Arrandale, Mieke Koehoorn, Ying MacNab, Susan M. Kennedy. How to use SAS® Proc Traj and SAS® Proc Glimmix in Respiratory Epidemiology 2006

Whaley AL, Francis K. Behavioral health in multiracial adolescents: The role of Hispanic/Latino ethnicity. *Public Health Reports* 2006;121:169-174.

= ABSTRACT =

The effect of parents' Korean proficiency on their
children's psychological health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mediated effect of th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YEEU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Mo Nam, Ph.D.)

This study identifies phenomena derived from the lack of Korean proficiency of the parent who belongs to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is one of the unique problems experienced by them. In addition, we focus on how their Korean proficiency affects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and their psychological health.

This study used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data of seven consecutive years from 2011(second survey data) to 2018(eighth survey data), which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conducts. We utilize SAS 9.4 for data analysis, and it used PROC TRAJ, PROC MIXED, PROC CAUSALMED, etc, for the SAS function.

First, to organize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longitudinal data, we use the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GBTM). Then, we decompose three groups based on children's depression levels, and we find a tendency in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ommunication level in all groups. Then, we use the Linear Mixed Model(LMM)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Korean proficiency and communication level as well as the communication level and children's depression levels. Through this analysis, we find that parents' lack of Korean proficiency acted as a factor hindering th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lso, it shows that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ffects lowering the children's depression level even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Lastly, to analyze the mediated effect of communication level between the parents' Korean proficiency and the children's depression level using the Sobel test and Bootstrapping. Through this, we reveal that communication level acted as a role of mediation between two aforementioned factors.

Our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we analyze the effects of language problems experienced by most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adolescent children. Our results can provide various practical suggestions for constructing a suppor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particular, we suggest the need to provide continuous language education to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by showing that the Korean proficiency of parents affects their children even after they enter adolescence. In addition, our results also suggest the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programs to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y show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m. We expect that, based on our study, the further studies can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by considering other than depression level among psychological health. We believe that this study stream would help identify the several problems that multicultural families may face and help establish various practical suggestions that can adapt to Korean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proficiency, children's depression, communication, mediation, MAPS